



누가 두려움을 파는가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최근의 담론들은 위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언론뿐 아니라 학계나 보건의료계, 정책 당국이 두려움의 재생산 경쟁에 나선 느낌이다. 특히 언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측이나 가능성을 사실인양 보도하거나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임적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악의 조건들을 투입해 도출된 최악의 결과들이 실험실에서 빠져나와 ‘시나리오’라는 포장지에 담겨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무엇보다 후진국형 전염병이다. 흔히 조류독감이라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이동에 따라 계절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이 집중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나라들은 방역 체계가 허술하고 보건 위생에 대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다.

특별관리 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보고되기 시작한 2003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세계적으로 18개국에서 3,389건의 발생이 보고됐으며 112명이 감염되고 그 중 57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10개 시·군 지역에서 19건이 발생했다. 중국·홍콩·일본·러시아·카자흐스탄·몽고·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과 미국·캐나다 등지에서도 발생이 보고됐다.

이 같은 발생사례 중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전체의 93%인 3,166건이 집중돼 있다. 인체 감염도 베트남 90명, 태국 17명, 캄보디아 4명, 인도네시아 1명 등 4개국에만 112명으로 집계돼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집중된 후진국의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축산물의 방역 체계는 물론이고 공중보건 시스템도 허술하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앞마당이나 뒤뜰에서, 심지어는 집안에서 사육된다. 위생과 보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낮아 격리나 이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 살처분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농장주에게 맡겨져 방역의 틈이 많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된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후 확정까지 48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을 만큼 신속하다. 광범위한 살처분 및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차단시스템이 준



비돼 있고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독감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 만큼 대응이 신속하고 철저하다. 감염돼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농가에게는 시가 보상이 이뤄진다. 시가 보상 정책이야말로 농장주들이 의사 증세까지 신고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미국·캐나다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방역 및 보건의로 체계, 의학과 국민들의 보건 의식 수준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의 견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예컨대 '1918년 5천만명의 인명을 앗아갔다는 스페인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면 공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유력 매체에 실린 적이 있다. 그의 전망이나 우려가 현실화하려면 오늘날의 방역체계는 타임머신을 타고 191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의 방역체계와 공중위생 정책, 사람들의 위생관념 등으로 후퇴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2005년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정황들을 가정해 놓고 나머지 변수들을 통제해 놓은 채 최악의 결론만을 말한다면 이는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학자나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되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 연구실의 가정이나 실험은 연구실의 방식으로 입증되고 연구실의 언어로 검증되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거기에 대비해 보편성을 입증하

는 것이 학자들의 노력이다. 실험실에서만 통용되어야 할 전제와 가정이 아무 통제없이 뛰쳐나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노출된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가와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안녕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독감 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여 철저히 방역조치하면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문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딕 톰슨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유엔 유럽본부 출입기자들을 위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를 세계적인 역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H5N1이 새로운 지역의 가금류로 전파되는 것은 우려의 대상이며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증거를 보면 인간에 쉽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며 매우 드문 케이스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의 얘기는 국내 언론에서 소홀히 취급됐다. 위험을 강조하는 이의 주장이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의 주장보다 크게 취급하려 하는 편향성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을 경중하는 전문가나 언론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창궐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은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외면한 채 위험만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만이 지속적으로 보도된다면 조류인플루엔자보다 더 큰 피해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세 소상공인들과 양계농가

들이 실체없는 칼날에 맞아 허망하게 쓰러지고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리고 도래하지 않을 지도 모를 상상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위험을 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어떤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게 현명한 이들의 처신이다. 백신 제약업체가 인류의 두려움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들을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C



(주)하림 김홍국 회장

- 2000년 전북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전북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 1980년 제1기 농어민 후계자 지정
- 1993년 신한국민인 선정(농업분야)
- 1999년 신지식인 선정(농업분야)
- 2001년~현재 하림 회장
- 2002년~현재 한국계육협회 명예회장

